

제14대 조계종 종정에 진제스님 재추대

임기 내년 3월26일부터 5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에 진제(사진) 종정예하가 재추대됐다. 조계종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대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현 진제 종정예하를 제14대 종정으로 재추대했다.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호계원장 성타스님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정추대회의에서는 진제스님을 종정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진제스님의 임기는 2017년 3월26일부터 5년간이다. 이날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종정추대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스님은 “현 종정 예하께서는 수행자의 표상이고 종단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없이 참석한 모든 어른 스님들이 종정 예하의 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석우스님과의 인연으로 약관의 나이에 산문에 들었다. “세상의 생활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있으니,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석우스님의 권유에 곧장 해인사로 출가했다. 이때가 1953년. 같은 해 해인사에서 석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해인사에서 해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중국 당나라 마조도일 선사(의)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타파해 항곡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근현대 한국선불교 중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는 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1999년 경주에 금천사를 각각 창건해 지역 포교와 더불어 선풍을 널리 전하고 있다. 또 조계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조실과 무자선대법회 초청 법주, 국제무자선대법회를 비롯한 백고좌대법회, 간화선 세계평화대법회 법주 소임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계종 기본선원,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화선 무자대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인 간화선 중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포살에 ‘승가청규’ 도입
내년 하안거부터 시행”

결사본부, 중앙승가대서 시연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가 〈승가청규〉의 포살법회 도입을 위한 시연법회를 지난 2일 중앙승가대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었다. 현재 안거 중 결계포살법회에서 독송하는 〈범망경 포살계본〉 대신 계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승가청규〉를 읽히게 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9월 발간된 〈승가청규〉는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개 분야로 나뉜 스님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의식주, 소유와 소비, 의례·의식, 일상 위(威儀), 소임과 실천 등 실생활과 관련해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항상 경어(敬語)를 사용한다’, ‘자동차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6일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만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시국관련 종단 사상 첫 호소문을 발표한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비구니회장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승가청규 포살본을 독송하고 있는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시민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 목적에 적당한 차량을 사용하되 검소함을 잃지 않는다’,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 고급음식점의 출입을 삼간다’, ‘세간의 호화 숙박시설 투숙을 삼간다’, ‘수행자 상호 간에 또는 신도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조목을 담았다.

아울러 본지는 승가청규 발간 직후 마련한 좌담회에서 “포살법회 때 승가청규를 읽어야 한다”는 패널들의 의견을 보도한 바 있다. 시연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영축총림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은 “〈승가청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포살법회 시 독송을 택했다”며 “향후 전국 교구본사 및 승가대학 등에 의뢰 수렴을 이어나기겠다”고 밝혔다. 결사추진본부는 종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안거 결계부터 〈승가청규〉 도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포=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대통령 즉각 퇴진이 국가 위한 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6일 종단사상 첫 긴급호소문 발표

조계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호소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조건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단이 공식적으로 최근의 시국사태와 관련한 종단 차원의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근본으로 돌아가면 본래의 뜻을 얻고 보이는 것만 좇다보면 근본을 잃는다’는 의미의 〈신심명〉의 ‘귀근득닐 수조실종(歸根得닐 隨照失宗)’이라는 구절로 말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어야 한다”면서 “작금의 상

황에서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 또한 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을 바로 본다 하되 바로 보지 못했고 국가를 위한다 하되 그러하지 못했다”며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건강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운 해답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촛불에 담긴 염원을 모아 새로운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조계

종은 우리 사회가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걸음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선언했다.

그간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1월9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수목등도와 사재능결과(樹木等到 花謝才能結果) 강수류도사 강재능임해(江水流到 舍 江才能入海)’라는 불교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민생안정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와 재가를 막론한 불교지도자를 비롯해 정치지도자, 시민사회단체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 왔으며, 대통령과의 면담에

서도 이같은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경수 목사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 직후인 12월1일, 총무원장 스님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의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협은 임장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호소문을 발표한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호계원장 성타스님, 교육원장 현웅스님, 포교원장 지흥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정념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호 소 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수백만 국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외침은 혼란과 위기의 국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국가적 혼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밝힙니다.

‘歸根得닐 隨照失宗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본래의 뜻을 얻고 보이는 것만 좇다보면 근본을 잃는다 하였습니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만이 대통령

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뜨겁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 안의 사정이 매우 시급하고, 나라 밖의 정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나라를 정비해서 안팎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 또한 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심을 바로 본다 하되 바로 보지 못했고 국가를 위한다 하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발로참회해야 합니다. 여야정치인들에 거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가 대통령의 탄핵에 있는

만큼 눈앞의 당리당략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지 말고 민심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대규모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운 해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 안에 드리워진 불신과 두려움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조속히 종식되고 우리 사회가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한걸음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60(2016)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성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월정사 주지 정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